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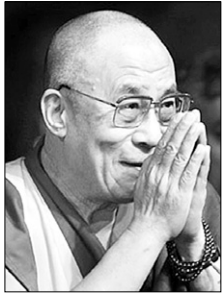
해외

WORLD

달라이 라마 대만 방문

대만총통 방문승인... 양안관계 미지수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사진)가 8월 31일 대만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관영 중앙통신은 최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8월 27일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사진)가 8월 31일 대만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정부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달라이 라마는 8월 31일~9월 3일 태풍 모라코트 피해를 입은 대만 남부 지역을 둘러보고 위로 회의를 병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달라이 라마는 마잉주 총통 취임 이후 두 차례 대만 방

문의사를 밝혔지만, 마잉주 총통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완곡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달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을 허용할 경우, 양안의 해빙무드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에 대해 중국 측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반대 입장을 밝힐 경우, 양안관계가 달라이 라마 대만 방문 문제로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국측은 달라이 라마를 분리주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소 중국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는 국가를 탐탁찮게 여겨왔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대만과의 관계가 호전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에 대해 중국 측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반대 입장을 밝힐 경우, 양안관계가 달라이 라마 대만 방문 문제로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국측은 달라이 라마를 분리주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평소 중국이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는 국가를 탐탁찮게 여겨왔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대만과의 관계가 호전될지는 미지수다.

이날은 기자

다문화가정 체계지원... 국내외 활동기반 다져

8월 25일 사무실 현판... 교육·문화·건강·법률 등 6개 분야 자문단 129명 위촉

정치와 종교를 초월한 다문화가정 지원단체인 한국다문화센터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는 8월 25일 서울 신문로에 사무실 개소 현판식을 열고,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관 4층 대강당에서 정책자문단 발족식을 가졌다.

정책자문단에는 무원 스님(전태종 총무부장을 정책자문단장으로 △교육 △문화 △건강 △법률과 인권 △언론 △거버넌스(민관학 통합 연계망) 등 6개 분야에 전문가 129명이 위촉됐다.

이날 행사에는 보선·무원 스님, 한나라당 진영 국회의원, 윤형식 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을 비롯해 정책자문단 위원 및 어린이 합창단 레인보우코리아 1기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와 관련한 행사들이 풍성한 시

대에 자칫 행사에 치우쳐 다문화가정 및 해외이주인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등한시하기 쉬운 요즘"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다문화자문단 발족과 같이 다문화정책을 거론하고 이를 재정립하는 시도는 한국의 다문화역사를 재정립할 중차대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 다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정책자문단 여러분의 몫에 달려있다"며 "여러분의 힘찬 출발을 축하하며 올바른 다문화사회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다문화사회의 법제화를 준비하는 '국회다문화포럼' 발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날 발족한 다문화정책자문단은 국회다문화포럼에 대한 정책자문을 비롯해 한국의 다문화현황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과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다문화센터는 교육·인권 등 6개 분야 전문가 129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다문화가정 지원 활동에 나선다. 가운데는 정책자문단장 무원 스님.

정책자문단은 6개 분과별로 서로 열린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에 따른 제반 문제를 조사 연구하며,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열린 다문화공동체로 나아가길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자문단은 주요사업으로 △다문화사회관련 자료집 발간 △정부 및 국회의 다문화 정책

에 대한 의견 개진 △국제 다문화포럼 및 네트워크 참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정책자문단은 매월 1회 분과별 세미나와 분기별 전체세미나를 진행하게 된다. 9월에 열리는 첫 세미나에서는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어 문제를 포함해 국내의 정규교육을 받을 때 겪는 문제점을

짚어볼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진영 한나라당 의원은 "다문화정책자문단 발족은 미래로 가는 로켓이라 생각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를 빈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자문단에서 역량을 힘껏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선 스님은 "나"라는 상(相)을 잃고 이웃을 위해 살라고 모든 성인들이 가르쳤듯이 자문단 구성원 및 국민들이 모든 상대를 나와 같이 대하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축사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 이어 한국다문화센터의 사업 중 하나인 '다문화자녀대학생 멘토링' 1기 시상식, 레인보우코리아 1기 어린이합창단원들의 합창공연 및 이현정 한국다문화센터 부소장의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 있다>(소울메이트) 출판기념회가 진행됐다.

이날은 기자 bohyung@buddhanews.com

러시아 대통령 불교지원 약속

부랴트 공화국 이볼가 사원 방문해 '눈길'

개신교신자인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불교의 지원을 약속해 눈길을 끈다.

드미트리 메드 베 데프 대통령은 8월 24일 러시아 불자들에게 그들의 전통을 부활시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시킬 것을 약속했다.

인도 주요뉴스 사이트인 Zeenews는 최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사베리아 부랴트 공화국의 주요수도원인 이볼가(Ivolga) 사원을 방문한 것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일어난 일"이라며 "그는 러시아불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합보 라마(Pandito Hambo Lama Damba Ayushev)와 그의 제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모태신앙인 대통령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의 전통종교시설들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은 이슬람교가 지도자들과 만나 모스크바 이슬람 사원을 방문하는 등 다종교 정책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은 "이번 불교사원 방문이 당국과 전통종교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TV연설을 통해 말했다.

그는 △학교에서 기본 종교교육 실시 △군대에 종교시설 설치 등 종교활동의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 같은 결정이 "모든 종교 공동체의 지원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은 기자

"이제 '엄마' 밖에 말 못해요" "인연터에서 염불봉사 회향하길"

생명나눔 9월의 환우 천재호씨 선정

조계종 복지재단 염불자원봉사교육 1기 수료

"한 가정을 짊어지기 위해 이라크 파병에 지원했던 용감한 청년이 이제는 '엄마'라는 말 밖에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의 환우로 천재호(27·남)씨를 선정했다.

밝고 책임감 있는 천씨는 집안의 기둥답게 믿음직한 아들이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라크 파병에 지원해 군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도 가정경제를 걱정하며 대학진학의 꿈을 접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천씨에게는 사 업실체 후 보이지 않는 한쪽 눈으로 건축 일용직 노동일을 하다 척추수술을 3번이나 받은 아버지와 요양보호사 등을 하며 가계를 이끌어 온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강하고 믿음직스럽던 천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고가 일어났다. 낙상으로 머리를 다치고 여러 차례의 머리 수술을 받게 된

것.

천씨는 얼마 전 건강이 호전되다 갑자기 뇌수종이 생겨 다시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어머니는 아들의 오랜 간병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지만, 자식의 치료만을 포기할 수 없었다. 심신이 지치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고 웃거나, 인사하고, 치료를 통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미어지지만 희망의 끈을 더 힘주어 잡고 있다.

천씨는 이번 입원으로부터 800만 원 넘는 고액의 치료비를 내야하고, 앞으로 수술도 앞두고 있어 얼마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할지 모른다. 전세자금 융자 4100만원도 상환해야 하는데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치료를 어찌 감당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 후원계좌 번호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이나은 기자

불자가정이 상(喪)을 당했을 때, 염불 위주로 임종봉사를 펼칠 불자를 양성하는 염불자원봉사 교육이 첫 회향식을 가졌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은)은 8월 26일 재단 프로그램실에서 염불자원봉사교육 1기 수료식을 가졌다.

복지재단은 수료생들을 모집해 7월 13일~8월 26일 총 12회에 걸쳐 염불자원봉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1기 염불자원봉사교육에서 염불은 국립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인 무관 스님이, 조교는 한국불교교육연구소 소장인 도영 스님이 지도를 맡았다.

무관 스님은 수료식에서 "염불봉사는 불교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육기간동안 열심히 배운 것들을 인연터에 가서 잘 회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장례봉사문화와 포교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염불자원봉사자 1기생들이 8월 26일 수료식을 가졌다.

도영 스님은 "불교계에 염불봉사자들이 부족해 매우 안타까웠는데 이곳에서 첫 봉사자들이 배출됐다는 것이 매우 뿌듯하다"고 밝혔다. 염불봉사 1기 교육생들은 모두 60명이며 이들은 앞으로 호스피스 대상 가정, 일반 불자 가정을 방문해 무료염불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계획이며 2기 염불봉사교육은 10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1기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

대부분은 본인의 가정이 상을 당했을 때 염불봉사의 필요성을 느끼나 교계에 이러한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크게 아쉬움을 느꼈던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복지재단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스피스 활동과 함께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한 염불자원봉사단을 양성, 체계적인 상·장례봉사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재단 복지사업부 이은희 팀장은 "염불봉사교육 프로그램이 그간 미진했던 교계 상·장례봉사문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염불자원봉사활동은 포교활동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23-5101 이나은 기자

불교 백년대계를 동국대학교와 불교계가 함께 준비합니다.

불교계 최고 고등교육기관인 동국대학교가 미래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주인공 양성을 위해 1사찰 1장학생 후원 장학봉사를 시작합니다. 불교계 인재 육성의 중심 동국대학교는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우는데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각 사찰마다 장학생 후원 참여는 불교 대중화와 미래 불교 발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인재를 키우는 '1사찰 1장학생 후원' 장학봉사

- ◆ 참여 대상: 사찰(스님 및 신도회)
- ◆ 참여 방법: 신청 방법 - 전화 접수 02-2260-3300, 8992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http://ilove.dongguk.edu> 후원 금액 - 학생 1명당 1백만 원(인원 추가 가능)
- ◆ 기타 사항
 - 장학금 출연 사찰 명의로 해당 장학금 명칭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 ○○사찰 장학금, △△스님 장학금 등)
 - 장학생 선발 기준, 지급 인원 및 장학금액을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출연 사찰과 선발된 장학생간 1:1의 직접적 인연 (해당 사찰에서의 수행생활과 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동국대학교 대외협력단 -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Tel. 02-2260-3300, 8992 / Fax. 02-2260-3796
<http://ilove.dongguk.edu>

세상을 비추는 힘 세상을 깨우는 이름

dongguk UNIVERSITY

불기 2553년 대한불교대승종 종도수련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존경하는 대승종도 여러분, 중현종법 교육원법 제1조 연수원법 제2조 승니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종도수련대법회를 봉행하오니 필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일 시 : 불기 2553년 9월 22일 ~ 9월 24일(음 8월 4일 - 8월 6일)
- ◆ 입 재 : 불기 2553(2009)년 9월 22일 오후 3시 입재 (입소등록 당일 오후 3시까지 완료요망)
- ◆ 준비물 : 가사, 장삼, 발우, 목탁, 요령, 필기구, 개인 세면도구등
- ◆ 장 소 : 다보수련원 043)833-7789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392-10)
- ◆ 접수 및 문의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02) 951-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010-7322-4747
- ◆ 후 원 : 대한불교대승종 총 무 원 · 대한불교대승종 중앙 종의회
대한불교대승종 교구종무원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장 도관 지법 합장